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미 외신뉴스 등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난 12일 태국 북부에 3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치앙라이가 물에 잠겼습니다.

치앙라이 시 뿐 아니라 메싸이도 전역이 침수됐습니다.



매싸이 성도들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올리며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이번 홍수로 북부 10개 주 60000가구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고 아직도 그 대부분의 가구들이 물에 잠겼고, 태국 정부는 군부대를 동원해 이재민들의 구조와 수해복구를 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이재민들이 있다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싸이에서 물이 빠져나간 집을 정리하며 보내온 사진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집이 잠겨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잘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가위를 앞두고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며 동역자분들이 누리는 풍성함을, 소외된 이웃에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어머니는 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중이십니다.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